‘광주 세계양궁대회’ 분위기 달군다

‘양궁스타 포토존’ 개장 등 스포츠 관광 자원화 박차 17일 ‘2022 양궁월드컵’ 개최

광주시가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겨냥한 스포츠 관광 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적 궁사들을 배출한 광주여대에 양궁 스타 포토존을 개장한 데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세계양궁대회 전초전인 ‘2022 양궁월드컵’도 개최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여대에선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김광아 광주양궁협회장, 정길영 광주관광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궁스타 포토존’ 개장식이 열렸다.

개장식은 포토존 제막행사를 시작으로 양궁스타와 활 쏘기 세레모니, 시설관람 등이 진행됐다.

양궁스타 포토존은 지난 제32회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를 비롯한 기보배, 최미선 선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한 광주여대에 조성됐다.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 광주여대는 대학 1곳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3회 연속 배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스포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스타 포토존 개장 등을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궁스타 포토존은 국내에서 유일한 높이 3.5m의 대형 ‘활’ 조형물과 한국양궁, 양궁선수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K-양궁 포토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포토존 내에 조성한 명예의 전당에는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광주여대가 배출한 선수들의 핸드프린팅과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모습 등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2022 양궁월드컵’ 개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광주에 모여 직접 실력을 겨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스포츠 일상회복을 상징하는 대회로 평가 받고 있다.

이미 지난 9일 호주 선수단 12명은 이날 인천공항을 거쳐 특별 수송버스로 광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으며, 11일 버진아일랜드, 13일 홍콩과 브라질 등 각국 선수단이 차례로 입국할 예정이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초전 성격인 이번 대회는 17~22일 광주 국제양궁장 등에서 열리는데, 38개국 381명 선수단이 참가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양궁스타 포토존이 스포츠 관광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에서 16일부터 열리는 국제대회인 ‘광주 2022 양궁월드컵’으로 많은 양궁 선수들과 스포츠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양궁 스타 포토존 개장 10일 오후 광주여대에서 열린 양궁 스타 포토존 개장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활 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빠른 하위 변이 6명 감염

광주 1523명, 전남 2303명 코로나 신규 확진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12.1’ 국내 확진자가 추가 발견되고, 신규 감염 감소세도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규 변이 위험도가 높지는 않지만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철저한 개인방역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523명, 전남 2303명 등 3826명이 신규 확진됐다. 특히 광주지역 신규 확진자 중 활동량이 많은 20대 이하 비율은 43.3%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비율은 15.4%에 머물렀다.

전남은 순천 436명, 여수 328명, 광양 264명, 목포 258명, 무안 106명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또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BA.2.12.1 해외유입 사례 5건이 추가로 검출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BA.2.12.1 감염자 6명은 모두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사례다.

국내 첫 BA.2.12.1 감염자는 지난달 16일 입국해 다음날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3차접종 완료자로, 인후통과 콧물 등 증상이 있었다. 이후 18일, 22일, 24일, 28일(2명)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 5명이 각각 입국 다음 날 BA.2.12.1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24일 입국자는 무증상이고, 나머지는 인후통 등 증상을 보였다.

BA.2.12.1은 BA.2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변이로,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됐다. 미국은 이 변이가 증가하면서 5주 연속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만 신규 변이 위험도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 유명 크루즈선사 ‘실버시’ 여수 온다

전남도, 방문의 해 맞아 해외 크루즈 마케팅 본격 추진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진 크루즈 선사인 ‘실버시(silversea)’가 여수항에 입항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2022’에 참가해 기항지 설명회와 개별 면담에 나서 실버시(silversea)를 유치한 것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실버시는 세계 크루즈 여행객이 뽑은 최고의 럭셔리 선사다. 미식, 전통문화, 모험 등 테마 크루즈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수시와 전남관광재단이 먹거리, 향일암, 낙안읍성 등 선사 맞춤형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

전 객실이 스위트로 구성된 실버 쉐도우(Silver Shadow)와 실버 위스퍼(Silver Whisper)호를 한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여수에 2023년까지 3항차 입항하도록 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은 1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또 세계적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러비안’, ‘카니발’, ‘노르웨이지언’ 등과도 개별 상담을 갖고 여수 크루즈 기항지 및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특히 로얄 캐러비안은 한국 기항지 개발에 관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공사 미주지역센터와도 미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 방문의 해 홍보 및 관련 행사 추진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크루즈 입항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크루즈선사 유치활동을 벌였다”며 “앞으로 세계적 크루즈 선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래전략산업 국가공모 3개 확보 쾌거

드론·바이오·수리조선 기반구축 사업비 415억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드론·바이오·수리조선 분야 3개 사업을 확보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모니터링·실증 기반 구축(전남·부산·경남 협력), 디지털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전남·광주·충남 협력)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진단·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된다. 국비 250억원을 포함 총 4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모니터링·실증 기반 구축사업’은 ▲전남의 양식장 및 불법어업 감시 ▲부산의 교각 시설물 감시 ▲경남의 적조 및 해양오염 감시 등 지역별로 특화한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남해안권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교차 실증을 하는 것이다. 농업·물류·운송용 위주인 드론 서비스 시장에 해양 모니터링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전남·광주·충남이 연계해 각 지역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노화질환에 대비한 흡수성 소재 융복합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실증, 인허가, 상용화를 아우르는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품 출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도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진단·관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중소형 선박의 엔진수리 분야를 특화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2025년 신설될 해경 서부정비창 수요에 대응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수리 산업이 전남 서남권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국가공모에서 지난 2020년부터 6개 사업, 국비 430억 원을 포함한 총 843억 원을 확보해 미래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어린이 공원 수요에 부응 못해”

광주전남연구원, 정책브리프

광주·전남의 어린이공원이 지역 확장, 옛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행한 광주전남 정책브리프(Brief)에 실린 ‘어린이공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어린이 공원은 403개, 전남은 380개로 유아 1천명당 각각 2.3개, 2.0개다. 광주에서는 옛 도심, 전남에서는 시(市)급 도시에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에 조성되는 장소적 한계로 규모가 작고 놀이기구 구성도 단조로워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1957년 광주·전남에서 처음 지정된 북구 신안동 태봉 어린이공원, 북구 중흥동 미리내 어린이공원의 역사성을 알리고 서울, 부산과 함께 전국에 3곳뿐인 광주 어린이대공원도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 어린이대공원은 회전목마, 바이킹 등 5개 놀이시설만 남아 있어 ‘대공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